



일시: 2012년 1월 31일  
장소: 램넨트 신학교

# 월간 메시지 기도카드 (2012년 1월)

"1월 Keyword: 하나님과의 소통-경신, 기도 소통, 교회 소통, 개인화 소통, 기도 점검, 개인화 기도"

세계복음화 상임위원회 인터넛한국

①http://www.jcking.net ②http://www.rutc.com

전도제자: 전도제자의 기도 소통	70인: 교회 소통	미션홀: 개인화 소통 (빌1:6)	전도전문훈련원 졸업예배: 성공한 제자들의 비밀 (행1:1-8)
<p>◆<b>서론</b> ▶오늘 하루종일 총 주제는 하나님과의 소통이다. 전도케프의 큰 노하우 두 개가 있다. (1)먼저 참고할 세가지- 그 지역의 경제, 문화, 종교를 이해해야 한다. (2)그 다음에 복음을 위하여 집중할 수 있는 지속팀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한 열쇠이다. ▶우리 램넨트에게 제일 필요한 게 복음이고, 복음만큼 중요한 게 기도소통이다. 어떻게 해야 하는가?</p> <p><b>1.확신</b> ▶확신이란 성경과 역사에 근거해서 확실한 자료를 가진 것이다. 이것은 감정적 확신이 아니라 확실한 근거에 의한 믿음이다. (1)행1:1, 3, 8, 역사적으로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. (2)초대교회 이후 700년, 마틴 루터이후 500년만에 회복된 복음이요, 전도운동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. (3)물 시간표를 본 사람이다(마24:14, 행1:8)-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이미 세계복음화의 끝을 보고 우리가 모이고 함께 가는 것이다.</p> <p><b>2.결단(행1:14)</b> ▶역사적으로, 성경적으로, 사실적으로, 종교적으로 확실한 답이기 때문에 결단을 내린 것이다. (1)사회 단절- 여기에 가면 사회 단절이 된다. (2)경제 문제- 여기에 가면 경제문제가 온다. (3)순교-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죽음의 결단을 내렸다.</p> <p><b>3.체현(행2:1)</b> ▶기독교는 체현의 종교가 아니다. 그러나 사실이기에 때문에 열매로 오게 되어 있다. (1)출애굽- 이 체험은 출애굽 때에 나타난 응답이다. (2)골2:28, 수4:6- 하나님께 예언한 그 성취다. 수4:6, 힘으로, 능으로 안 되지만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. (3)행1:8- 예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신 응답이다. 성령 충만 반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.</p> <p>◆<b>결론- 10일간 (행4:29-31, 행13:1-4, 행19:1-7)</b> ▶초대교회의 전도제자들의 모습을 따라.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10일간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했다. 행4:29-31, 베드로가 증인대에 섰을 때 전교인은 기도했다. 행13:1-4, 바울은 금식하면서 기도했다.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이뤄드리는데 심부름 하려고... 행19:1-7, 에베소 운동을 이루기 전에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했다. 이게 초대교회 전도제자들의 전 모습은 아니고 캠프할 때의 모습이다. ▶결국, 어떤 결론이 나오는가? (1)사람 바라보지 마라 (2)기도조- 이런 사람들로 기도조가 만들어진다(5인 1조). (3)24시 조(組)- 이런 사람들이 한 명씩, 두 명씩 생겨나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24시조가 생긴다. ▶이 시간부터 여러분 기도가 시작되고, 여러분 교회에, 전도현장에 큰 문이 열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응답은 지금부터 계속되기를 바랍니다.</p>	<p>◆<b>서론</b>- 중직자로서 꼭 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. (1)사람 소리- 교회에 오면 생각보다 사람소리를 많이 듣는다. (2)환경- 분위기라든지 환경을 접하게 된다. (3)세상, 연약- 그런 속에서 세상 속에 살고 있고 가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연약해져 있다. ▶그러면 오늘부터 중직자 여러분이 시작해야 할 게 하나 있다. 제가 진도하는 방법은 제일 키는 현장이 아니다- 새가족(분야→확립→교회화). 새가족이다. 더 중요한 것은 나하고 분야가 같은 새가족이다. 새가족을 접촉해라. 새가족에게 관심을 가지고 보면 이 사람에게 많은 문이 있다. 한 번 정도만 중직자들이 집에 초청해라. 중요한 것은 이 사람에게 확립을 시켜주는 것이다. 확립이 되면 교회화를 시켜주면 된다. 이런 사역들을 여러분이 해보면 굉장히 많은 열매가 일어난다. ▶그러면 새가족에게나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? <b>1.비밀- 가장 중요한 비밀을 갖고 있어야 한다.</b> (1)영적 상태(행1:1-14)- 앞으로 너가 기도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가져야 하는 영적 상태. 이것을 제대로 이야기해주면 그날로부터 역사가 제대로 시작된다. (2)영적 성취(행2:1-13)- 이때부터 알려줘야 하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로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이 성취된다. 그러면 완전히 신자가 되고 신자를 넘어서 제자가 된다. 이때부터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진다. 환경보는 눈이 달라진다. (3)영적 소통(행2:14-47, 행3:1)- 이것을 보고 영적 소통이라고 한다. 이것을 만들어주는 것이다.</p> <p><b>2.교회 소통</b> (1)강단- 이때부터 강단이 살아나는데 강단이 나를 위해 있는 것 같다. "사도의 가르침을 따라..." (2)성도의 귀중성- 이렇게 되어지면 복사와 성도의 귀중성을 보게 된다. (3)구원의 일들- 이때부터 구원의 일들이 보이기 시작한다. 복음이 다다. 이것을 보고 "떡을 떼며..." (4)오직 기도- 이런 배경을 아니까 오직 기도면 되느냐! 이렇게 만들어줘야 한다.</p> <p><b>3.교회의 이동</b> ▶이렇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도 그렇고 그 사람도 그렇고 교회의 기동으로 바뀐다. (1)어느 날, 개인기도의 성공을 이루게 된다. (2)기도조- 이 사람이 기동조가 구성이 되고 교회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된다. (3)24시 기도조가 나온다.</p> <p>◆<b>결론</b> ▶하나님이 최고로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뭐냐? 사역 중에 제일 큰 사역.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는 메시지를 많은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것이다. (1)초대교회 사도들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. (2)사역을 도운 두기과 같은 사람이 이 부분을 도운 것이다. (3)집- 초대교회 많은 집이 나오는데 집에서 메시지가 전달 되어졌다. ▶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 나머지 것은 사실상 기도할 필요도 없다(마6:33).</p>	<p>◆<b>서론</b> ▶하나님과의 소통의 결론이다. 개인화 되는 소통이다. 미션홀에서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기회다. 무엇부터 제대로 해야 할 것인가? 많은 사람들은 틀린 생각을 갖고 있다. 이것을 고쳐주는 게 중요하다. 동조해주는 걸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착각이다. 동조는 여자들은 우리가 눈물 날 때에 같이 눈물 흘려주면 좋겠다고 하지만 그러면 영적 문제가 더 온다. 위로는 되지만 영적으로는 더 죽는다. 하나님 앞에서는 반대말을 들어야 한다.</p> <p><b>1.개인화의 비밀</b> ▶그리스도 제자로 서는 것이다. 혼자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제자를 세우는 게 개인화다. (1)요19:30(신분), 그러려고 하면 요19:30,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끝냈다. 이것을 찾게 해야 한다. (2)지속하는 방법(과정)-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고 했다. 그것을 찾아내야 한다.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를 보거나 응답을 보면서 다 끝낸 사실을 지속적으로 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. (3)정복(권세)- 드디어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을 정복하는 자리에까지 가야 한다. 그것을 보고 권세라고 한다.</p> <p><b>2.구분 할 것</b> (1)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과 (2)큰 질병에 있는 사람. ▶이런 사람은 확립될 때까지 매일 접촉해야 한다. (3)램넨트와 (4)엘리트들이 있다. ▶이 사람들은 매일 접촉하면 안 된다. 적절한 시간표를 가지고 알려줘야 한다. (5)깨닫지 못하는 사람- 영적 문제도 없고, 은혜도 못 받고,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. 교회는 다닌다. 이런 사람은 꾸준히 기다리면서 행13:48에 그리스도께서 작정하신 시간표를 보는 것이다. ▶부교역자들은 이것을 깨달아버리면 너무 소중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. 교인을 개인화시켜야 한다.</p> <p><b>3.어느 정도 개인화시켜야 하는가?</b> (1)그 사람의 과거를 완전히 발판으로 삼도록 만들어라. (2)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이것을 성취시키는 과정이라고 설명해줘라. (3)반드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고 되어 있다. 중요한 것은 개인마다 이 날이 있다는 사실이다.</p> <p>◆<b>결론- 이렇게 되어질 때</b> (1)전 교회와 영적 소통이 된다. (2)말을 안 해도 전 세계와 영적 소통을 하게 된다. (3)그리고 여러분이 전 후대들과 램넨트들과 영적 소통이 일어난다. 여기까지가 완성이다.</p>	<p>▶교회에 가서, 사람 만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있다. 이 분이 내 제자라고 하면 같이 있게 될 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교인들을 보고 기도제목을 적어내보라고 했다. 기도제목들이 거의 다 영터라다. 막연하고 안 될 기도들이다. 그것부터 고쳐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고 말씀도 주었다. 그리고 실제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할 때에 두 가지를 가르쳐줬다.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. 강단을 놓치지 말고.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실제로 네 손으로 권세 사용해라. 쉽게 말하면 제일 먼저 가르쳐준 게 기도다. 그 사람에게 맞는 기도를 가르쳐줘라. 개인에게 맞는 기도제목이 있다. 어렵지 않다. 상대방을 보면 보인다. 그것부터 해결해야 한다. 이 사람이 응답 받기 시작한다. 예수님은 제일 먼저 기도를 가르치고 마지막에도 기도를 가르쳤다.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. 평소에는 새벽에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주셨다. 설교법은 안 가르쳐도 기도는 가르쳤다. 당장 오늘부터 내 기도가 맞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. 대부분 다락방 멤버들이 메시지 흐름을 타고 있는데 실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다. 목사님들도 막연하게 기도만 했지,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다.</p> <p>▶그러면 매일 세 가지를 발견해라. (1)행1:1, 3, 8 속에서 매일 같이 나를 발견해라. 매일의 나라는 게 있다. 매일 나를 발견해라. (2)행1:14를 붙잡고 매일 같이 나의 것을 발견해라.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발견해라. 어떻게 발견하느냐? 성경 행1:14를 보면 알 수 있다. 자기 것을 본 것이다. 나중에는 큰 응답으로 보인다. (3)나의 현장을 매일 찾아라. 찾아가라는 말이 아니다. 나의 현장을 매일 생각해보라. 성경은 행2장에 일어났던 게 가장 큰 현장이다. 행2장에 5가지가 나왔다. 행3:1의 현장이다. 행8, 9, 10장에 중직자 나온다. 행11:19, 현장이다. 행13:1, 현장이다. 행16:19-31, 행27장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.</p> <p>▶이렇게 메시지를 놓고 보면 오늘 나는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하느냐? 내가 해야 할 중요한 것은 무엇이나? 나의 현장은 뭐냐? 계속 질문하다 보면 열흘 쯤 하다보면 뭔가 응답이 온다. 결국 어떤 결론이 나오는가? 나만이라도 교회를 위하여, 복음을 위하여 헌신해야겠구나. 복음을 위하여 하는 건 굉장한 영적 아이큐가 필요하다. 정말 유일성의 응답이 온다. 주역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.</p>